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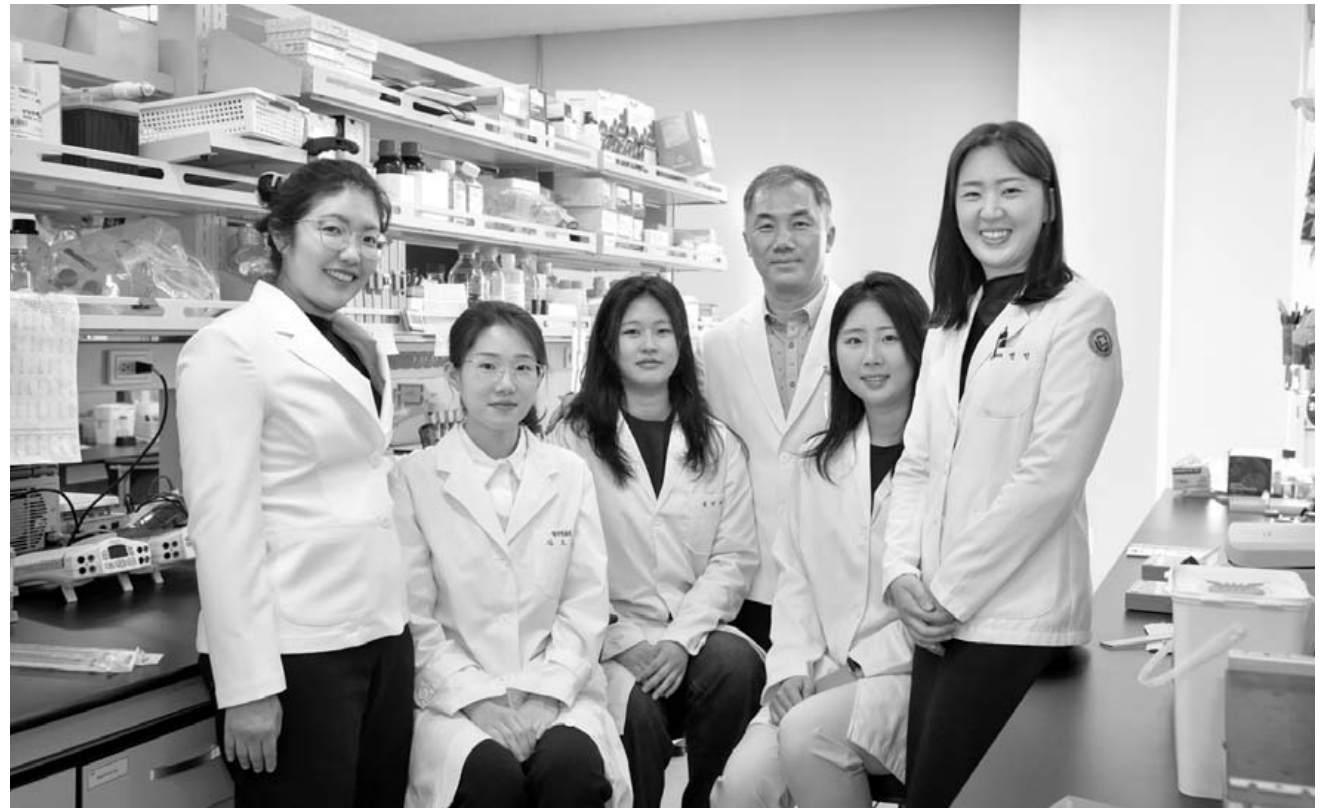
# ‘우울증 진단해 자살 위험 예측’ 바이오마커 발굴

### 화순전남대병원 김형석 교수 연구팀, 특허 출원 완료 간편·객관적 검사 가능...“위험군 확인해 자살 예방”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연구팀이 우울증 조기진단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굴, 특허출원해 주목받고 있다. 3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김형석(병리과)·이수진(법의학)·전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발굴한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혈액 바이오마커’와 ‘우울증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는 임신 진단키트나 코로나19 진단키트처럼 간편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바이오마커는 질병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암을 비롯해 뇌졸중, 치매, 정신건강 등을 진단하기 위한 효과적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우울증

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진단 과정은 설문 검사와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에만 의존해 왔다. 연구팀은 100여명의 주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살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는 유전자 바이오마커 3종을 개발했으며, 기존의 우울증 설문지(PHQ-9)보다 높은 정확도로 자살 위험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특정 바이오마커를 통해서도 주요 우울 장애 환자의 중증도를 경증 우울증과 구분하는데 성공했으며, 앞으로 치료 과정의 모니터링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바이오마커 발굴과 특허 출원의 성과는 전남대 의학과 학생 연구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이수현(2학년)·김민하(1학년)·김소연(석사) 연구원은 자살로 판정된 뇌 조직에서 일반 사망자와 비교해 특이하게 발견되는 유전자를 발굴한 후 이를 말초혈액에서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를 전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임상시험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김형석 교수는 “생물학적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사망 종류 판별은 법의학의 새로운 과학적 접근 방식”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큰 난제인 자살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지능화학신인재양성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뇌질환극복연구사업), 전남대병원(의사과학자양성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기수희 기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연구팀이 우울증 조기진단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굴, 특허출원해 주목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교수, 김소연 연구원, 김민하 연구원, 김형석 교수, 이수현 연구원, 전민 교수.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 조선대병원 ‘감염병전문 의료체계 구축 결과보고회’ 개최

###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2026년 말 완공

조선대병원(병원장 김진호)은 최근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3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결과보고회는 호남권역 내 감염병 대응을 시행할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및 특성화 사업으로 권역 내 자원 조사 항목 표준화와 신속한 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지자체 7곳 및 실무협의체 참여병원 34개소(제주도

제외)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신종감염병 대응 대형 국가정책 ▲감염병전문병원 자원 현황 ▲구축사업 결과보고 등이 다. 김동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단장(조선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이번 결과보고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며 향후 더 나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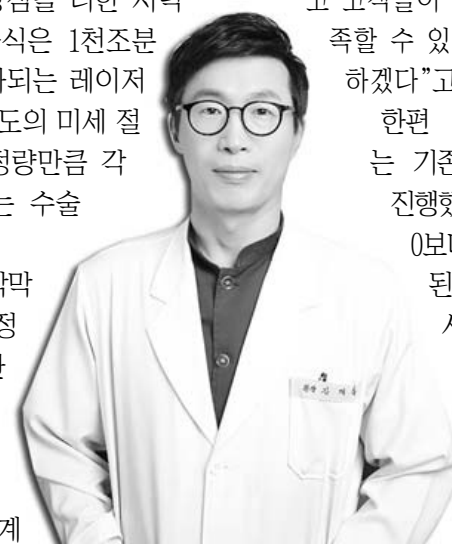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식을 가졌고 오는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

## 광주신세계안과 ‘스마일라식 8만례’ 달성

### 김재봉 대표원장...올 초 7만례 인증 후 반년만 성과

광주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사진)가 스마일라식 수술 8만례를 달성했다. 3일 광주신세계안과에 따르면 올해 초 스마일라식 7만례 인증 이후 반년 만에 8만례를 기록했다. 스마일라식은 전 세계적으로 800만안 이상 집도됐으며, 국내에서도 100만안을 돌파했다. 8만안은 국내 단일 안과 기준으로 이례적인 성과다. 라식과 라섹의 장점을 더한 시력교정술인 스마일라식은 1천조분의 1초 단위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사용해 1-2mm 정도의 미세 절개를 통해 시력교정량만큼 각막 실질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특히 의료진이 각막 실질을 직접 꺼내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수술이라 숙련된 집도의의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재봉 광주신세계

안과 대표원장은 독일 자이스 본사에서 2019년 전국 최초 ‘리딩스마일센터’ 감사패와 ‘Best Skilled Surgeon in SMILE’상을 받기도 했다.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대표원장은 “2013년 광주·전남에서 처음 스마일라식 수술을 했을 때만 해도 생소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력교정술 하면 스마일라식을 떠올릴 정도로 많이 찾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8만안이라는 숫자에 안주하지 않고



고 고객들이 수술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안과는 기존 스마일라식을 진행했던 비주맥스 500보다 업그레이드된 비주맥스 800을 사용하는 스마일 프로를 도입, 성공적인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기수희 기자

## 건강관리協·스파크바이오 ‘메디오픈랩 데이’

### 헬스케어·바이어 기업에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등 적극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이하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건협 분회 4층 추담홀에서 ‘메디오픈랩 데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오픈랩 데이’는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 바이오 분야 초기 및 예비 창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을 위해 스파크바이오가 주관한 행사로, 메디오픈

랩 참여기관의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실증사업 사례와 최신 업계 트렌드 및 인사이트를 나누며 참여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건협은 지난 4월 건강검진기관 최초로 공유실현실 ‘메디오픈랩’을 개소, 현재 헬스케어, 바이오 등 관련분야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메디오픈랩

데이에는 김중기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조인성 중앙대 의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메디오픈랩을 통해 많은 헬스케어 및 바이오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